

안동을 블로깅하다

ANDONG



태그TAG 1

안동식혜 양반
안동한우 ANDONG
안동찜닭 고택 고택체험 하회마을
간고등어 핫제삿밥 하회별신굿탈놀이
선비 안동막창골목 건진국수
도산서원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양반의 생활상을 경험하며 정신을 수양해보자.



- 4 | **번남고택** _ 주인장께서 직접 군불을 때어주시는 온돌
- 5 | **옥연정사** _ 400년 역사, 류성룡선생의 징비록 집필 장소
- 6 | **수애당** _ 아름다운 한옥, 파란 물 같은 수애당의 하늘
- 8 | **오천 군자마을** _ 자욱한 안개에 둘러싸인 신비로운 마을
- 9 | **치암고택** _ 마루에 앉으면 절경에 마음을 빼앗기는 곳
- 10 | **농암종택** _ 꿈결같은 하룻밤, 꿀맛같은 밥 맛!

번남고택

안동추천숙소

스누피 <http://blog.naver.com/bfyoon/50057753404>

5월 중순, 하회마을은 좁은 길과 담벽마다 정감이 넘치고, 낮은 담사이로 보이는 마당에는 소박한 봄 꽃이 한창이었다
번남택. 우리가 묵었던 방은 주인아주머님 성품처럼 깔끔하고 단아하게 꾸며져있다. 물론 집안에 양식으로 개조한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집 뒤 너른 뜰에는 주인께서 기르시는 무공해 국화밭이 있으니 가을에 가면 장관일 거다. 재배한 국화를 직접말린 국화차를 파신다. 여행지에서 뭘 잘 안사는 성격이라 그냥 주시는 차만 얻어먹고 왔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협등 유기농 판매점을 들어가봤더니 산지보다는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았다. 그곳에서 몇 병 사올 걸 하는 후회도 좀 들면서 ^^

밤에는 주인장께서 군불을 때주셨는데 그게 밤새 따시더니 새벽까지 따뜻하여 ..그래서 우리 온돌이 참 과학적이고 좋다는 것인가 보다.



하회마을
번남고택

◎이용문의

TEL : 054) 852-8550
home.invil.org/bunnam

번남고택에 묵으면서는 두끼를 고택에서 해결했다. 하회마을 안에는 따로 영업하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숙소에서 해결하는 것이 편하다. 안동 간고등어를 중심으로한 나물과 야채밥상으로 이 역시 정갈하고 맛있던 기억. 여러 모로 감사하고 좋았다
다음에 다시 안동에 가도 나는 번남고택에 묵을 거라는^^

옥연정사

잊지 못할 고택

사람향기 <http://blog.naver.com/pyy7770/50069358192>

야트막한 담장너머 멋드러진 소나무가 있는 마당. 400여년의 세월을 지켜온 아담한 고택

아~! 내가 꿈꾸었던 바로 그런 집이다. 주춧돌 하나, 돌 계단 하나, 기와 한장에도 의미를 지닌듯 싶다. 저녁무렵 하회마을로부터 뱃길이 막히며 오가던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딱 끊기며...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로 바뀌어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을 더욱 크게 들려준다.아~ 이 상쾌...기슴속엔 행복이 샘 솟는다.



음식이 담긴 그릇마저도 평소 접해보지 않은 사기그릇과 나무 수저... 정갈 하면서도 정성을 곁들인 전통음식으로 맞는 아침상. 마치 대가족의 밥상처럼 한방에 모여 함께 묵은 모든 사람들과 주인공구들... 모두 한자리에 아침식사를 한다.

“옥연정사”는 서예 류성룡선생이 국보132호인 징비록등 수많은 저술은 한 역사적인 장소이며 영화 스캔들(배용준,전도연 주연)의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을 운영하는 분은 인간극장에 출연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복의 그림같은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맞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아이가 고3이 되어 공부에 지쳐 힘들어 할때... 이곳에 데려와 며칠간 심심해서 몸살이 날 정도로 폭 쉬게 해주고 싶다는....-

하회마을
옥연정사

◎이용문의

www.hahoehouse.co.kr

아름다운 한옥 수애당 水涯堂

반디앤 루이스 <http://blog.empas.com/bandinlunis>



지난 12월25일부터 27일까지 회사동료와 함께 안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안동에서 한옥체험이 가능한 곳도 여러 군데예요. 살펴본 끝에 남북 독립운동가 수애 류진걸 선생이 지은 고택, 수애당에 가기로 결정!

수애당홈페이지엔 영덕, 주왕산 방면 직행버스를 탄뒤'임동'에서 내리라고 돼 있는데, 터미널에 가보니 임동에서 멈추는 버스가 없어졌더라구요.



■ 영계면의 장례, 장문기, 도끼, 물구, 굴참쇠, 새구리, 호신개 열경

수애당

●이용요금

방 사랑방 9만원
중간방 6~7만원
작은방 4만원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추가 조정)

아침식사 5천원
체험 1인당 1만원(1회)

●예약문의

TEL : (054) 822-6661
www.suaedang.co.kr

주의 하실 점은 안동시내에서 버스 끊기는 시간이 매우 이르다는 것, 오후 7시면 거의 모든 버스가 끊긴다고 해요.

1939년에 지어진 수애당은 3동 29칸으로 구성돼 있으며, 춘양목으로 지은 건물과 아담한 마루, 날렵하고도 부드러운 처마에서 고택의 기품이 느껴지죠. 부엌과 화장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방과 대청 마루는 황토로 마감해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 물 같은 수애당의 하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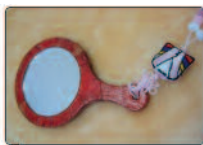
별도 비용 5천원으로 아침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저도 26일 아침 수애당 안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받았는데요. 조밥에 미역국, 자반고등어, 김치, 고사리, 무나물, 사과샐러드 등을 먹었죠. 특히 얇게 부친 배추전이 맛있었어요. 아 정신없이 먹느라 사진은 못 남겼네요 ::

수애당의 안마당은 아주 크진 않아요. 하지만 찬찬히 둘러볼수록 재미난 공간 입랍니다. 대문가까이엔 늪름한 개 흰개'백두'가 살고요. 부엌엔 아주머니를 엄마로 여기는 몰티즈 '똥이'가 있어요. 참. 한켠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마련돼 있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가신다면 굴렁쇠 굴리기. 방아찰기.장작때기, 고구마 굽기도 같이 해보세요.

수애당에서 만든 한지 손거울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만든 한지 손거울이에요. 만들기도 쉽고 재미도있지만 선물하기에도 그만입니다. 한지손거울 만들기 외에 숯대 만들기, 다도체험, 황토염색, 천연염색도 하실수 있어요. 체험 비용 1인당 1만원(1회)



안동여행 TIP!

서울 ▶ 안동

동서울터미널(강변역)에서 안동행 버스 이용. 요금은 15,600원(일반). 시간은 터미널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안동터미널 ▶ 수애당

안동 시내버스 33번 이용. 터미널에서 교보 건물 방향으로 직진하면 그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음.
버스비는 1,500원 정도 현금으로 준비. 내리는 곳은 기사아저씨에게 문의할 것.

33번 버스 시간표

오전 : 06:00 / 06:10 / 07:30 / 08:50 / 10:10 / 11:20
오후 : 13:10 / 14:50 / 15:30 / 17:20 / 18:20

경북안동
600년의
군자마을을
다녀오다

김용운의 아침을 여는 세상 http://blog.naver.com/yongwoon_k/120090693424

안동군자마을...네이버의 정겨운 이웃님 영동나미님의 소개로 찾게 된 군자마을 고택체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지 않았나 싶다. 네비게이션이 있으면 "오천유적지"를 찾으면 바로 알려준답니다. 저의 고택체험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우선..내가 숙박한 곳은 낙운정.이란 곳인데 여긴 다른 것 없이 방과 대청마루만 있는 전형적인 사랑방처럼 느껴졌다 밤에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이른새벽에 들은 소쩍새 소리는.. 도심과 확연이 다른.. 그제서야 아~~내가 시골에 와 있구나 느낌을 얻기에 충분했다.



여기는 내가 묵었던 고택 옆 탁청정(조선시대 정자)

경북유형문화재 제26호인 탁청정은 1991년 8월 22일 중요민속자료 제226호로 승급되었다. 1541년(중종36)탁청정(濯淸亭) 김유가 지은 가옥에 딸린 정자로 규모는 정면 7칸, 측면2칸의 팔각지붕을 하고 있다. 석봉 한호(1543~1605)가 쓴 濯淸亭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원래는 낙동강에 인접한 오천리에 있었으나 안동댐 수몰로 인해 1974년 현재의 오천유적지로 옮겨졌다.



여기는 탁청정의 한켠에 위치한 아늑한 곳으로 문은 열어보지 않았지만 해우소가 아니었을까 싶다.

자욱한 안개 넘어로 보이는 주사에서 왠지 대감이 나와 담배 한 대 물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른아침 이렇게 나들이를 하고선, 군자마을에서 차려준 따듯한 밥과 맛있는 밑반찬으로 그렇게 아침을 보냈다. 외지에서 왔다고 한마디라도 해주시려는 모습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친절했으며 또한 문화재 설명도 재미나게 잘해주는 김방식 관장님이 다시금 생각합니다.

발길가는대로 숙소추천 치암고택

ecnmst <http://blog.naver.com/dcttrue25/110066112562>

안동역에서 택시를 타서 치암고택을 가면 택시비로 약 3300원정도가 나온다. 택시아저씨께서 치암고택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 치암고택 홈페이지에서 약도를 뵈어갈 것!

도착하면 어떤 분께서 방을 소개해주신다 우리가 묵었던 곳은 2인용 방2개(학구재,일건재)이다. 각 가격은 1박에 3만원, 즉 방2개면 6만원이다



우리방에서 맞은편 안채를 찍었다. 침구들. 당연히 한옥이기에 침구들은 위와 같다. 아침에 토마토주스를 챙겨주셨던 주인아저씨 ^^ 하루동선과 가볼 곳. 지도와 버스시간을 모두 챙겨주셨던 친절하고 자상한 분이다.

그냥 마루에 앉아 고개를 좌우로 둘러만 봐도 절경이 따로 없다. 그날 저녁 비가 내렸는데 생각도 못하고 마구 벗어났었던 신발이 아침에보니 어느새 마루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다.밤새내리는 비에 젖을까 주인아저씨께서 챙겨주셨던 모양이다.

여름에 여행했기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화장실
우선 화장실은 수세식이고 세면대가 있으며 화장실 이용칸이 1칸이있다 그화장실은 (일건재,학구재 이용객)과 대문옆의 사랑채의 손님만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약 4~6명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없다.
그리고 샤워실내에도 세면대가 있으며, 샤워대가 4개가 있다. 샴푸와 린스. 트리트먼트까지 ㅋㅋㅋ구비되어 있으며, 수건도 매일 5개를 가져다 놓으신다. 치약도 있고 비누도있다 그리고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DMB는 터지지 않는다. πππ
어쨌든 한옥체험은 그냥 그방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쁜생각과 헛된 잡념을 버려야 하며, 허튼 행동을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다. 게다가 안동은 지도를 보면 안동 시내에서 사방으로 명소들이 뻗어있어서, 안동전체를 구경하려면 안동시내에 투숙하는 것이 이동하기에 편리한데 이곳은 안동시내에 있어 이동이 용이 하였다.

농암종택 에서의 꿈결같은 하룻밤, 꿀맛같은 밥맛!!

짱아 <http://capzzang70.com/100091444024>

안동여행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단연코 우리의 숙소 '농암종택'입니다. 자~함께 가보실까요?



농암종택 전경입니다.



농암종택 입구입니다. 멍멍이가 반겨 주네요 ㅎㅎ
가장 큰 건물인 사랑채입니다.뒤로 안채가 있고요.
식사는 안채에서 할 수 있어요.



선조께서 직접 써서 하사 하셨다는 현판.
積善—선을 쌓으라.

조선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
답니다.

가장마음에 들었던 궁구당.
궁구당 肯構堂 이란<서경書
經>(대고편大誥篇)에 나오는
구절인데
'조산의 업적을 길이길이 이
어바는 집'이라는 의미 예요



농암종택의 묘미는 풍경에 있습니다. '배산임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뒤로는 청량산 자락이. 앞으로는 낙동강이 있으니 그 위치가 좋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침이면 물안개가 자욱한 풍경이 운치를 더해 줍니다. 허나 지대가 좀 낮아 여름이면 침수 피해가 종종 있다는 게 약간의 흠이라면 흠이지요.



사랑채 앞의 너른 마당에는 평상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 종택에서는 취사가 안되고 서원에서만 취사가 되는데 원할 경우 마당에서 바비큐를 해먹을 수 있습니다.

농암종택 안에는 개별 욕실,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떨어는 이렇게 개조한게 어떻게 진정한 고택체험이냐고 하실 분들과게실테지만 이미 문명의 이기에 길들여진 우리들에게엔 이 정도는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새벽엔 강가를 혼자 거닐어 봅니다. 그렇게 사색에 빠지기도 잠시... 후다닥~밥먹으러 뛰어갔습니다. ㅋㅋ 이렇게 잘~차려져있어요. 와~완전 감동했어요. 안동의 토속 음식과 맛난 파전도 있어요 북어 보푸리와 부추 텃텃이는 꼭 먹어 보세요. 따끈한 시락 국도 콩가루를 넣어 더욱 고소합니다. 밥엔 잡곡도 들어 있고요. 음식 하나하나에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뜨끈 뜨끈한 송냉까지~ 배 빵 터졌어요~ ㅎㅎ 이모든 것이 단돈 6천원 그어느 뷔페도 부럽지 않은 음식입니다.



고고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어르신께서 종택을 지키고 계신곳 촌부들의 손맛이 빛어내는 맛난 음식이 반겨주는 곳. 안동으로 가면 농암종택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건 어떨까요?

태그TAG 2

안동식혜 양반 고택체험 ANDONG 하회마을
안동한우
안동찜닭
안동막창골목
안동
간고등어 고택 핫제삿밥
하회별신굿탈놀이
선비 도산서원 건진국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그 푸짐한 양에 한 번 놀라고, 그 맛에 두 번 놀란다!
그 푸짐한 인심에 한 번 감동하고, 그 맛에 두 번 감동한다!



14 | **매일찜닭** _ 김이 모락모락 따끈할 때 먹어주는 그 맛

15 | **신세계찜닭** _ 닭고기와 어우러진 양념

16 | **영광찜닭** _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속속들이 잘베인 양념

17 | **유진찜닭** _ 다락에 올라 낙서하며 먹는 재미

고고씽 안동찜닭

케이트 <http://blog.naver.com/rage0524/110030778748>



원조 안동찜닭집 찾아가기!!
인터넷을 뒤져보니 원조집이라는게 몇몇군데 되더라구요.:
원조라는 곳 중에서 맛으로 가장 많이들 추천하시는 곳을
가자. 결국 중요한 것 맛 아니겠니? 라는 생각하며



추천글이 많았던 곳 중 하나인

안동 매일 찜닭 집에
미리 전화를 하고 주문해 놓고 갔어요.
찜닭 만드는데 시간이 20여분 걸린다니까
주문하고 가길 잘했죠 :)
켄터기치킨(정겨운단어죠 ㅋㅋ)도 한 마리 튀기구요. ㅋ

각종야채와 잡채면 그리고 졸깃한 닭고기 양도 푸짐하구요...
김이 모락모락 따끈할 때 먹어주는 요맛.
원조는 원조라고 여기 부산에서 먹던 찜닭보다 양념도 맛있고 암
튼 "더"맛있는 맛이었어요 ㅋㅋ
남은건 포장도 해줘서요
집까정(부산 ㅋ)싸들고 와서 데워먹었어요~~ㅎㅎ

안동
매일찜닭

☎문의전화

054) 854-4128

꼭
먹어봐야할
안동찜닭

때깎치녀 <http://blog.naver.com/ceylon01/20092732487>



안동에 오면 안동 찜닭을 먹어야지요 ~호호호
미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세계찜닭' 집을 알아뒀지요. 새로운 곳에 가기 전에 맛집을 미리 알아두는 센수! 역 근처 구시장 안에 찜닭 골목이 있는데, 근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면 골목을 가르쳐주실꺼예요~ㅋ



요게 유명세를 톡톡히 치르는 안동 찜닭

평일엔 반마리 메뉴도 해주신다는데 주말엔 안된대요 ㅠ 대신 남으면 싸주신다고.. 이게 한 마리고 가격은 20,000원
찜닭은 닭고기와 어우러진 양념이 압권인데 요긴 제가 좋으라는 양배추도 당근도 들어있어서 맘에 들었어요~ 주인언니도 넘 친절하시구용~

역시 둘이 한마리를 먹기엔 양이 좀 많아서 결국 반정도는 남긴 듯;; 암튼 둘다 배부리 맛있게 먹었어요~

안동
신세계찜닭

☎문의전화

054) 859-5484

안동구시장 찜닭골목

김정희 <http://blog.naver.com/k4minlove/10038223545>



안동구시장에 있는 영광찜닭집이에요

와~~찜닭을먹어보긴했지만 역시 원조더라구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닭고기 속속들이 잘베인 양념들하
며...절대 퍼지지않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당면과 싱싱한 야채들...
우리식구들 먹는 내내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ㅎㅎ



여기서는 찜닭을 서울로 택배를 부쳐준다고 하네요.
정말 양도 푸짐하고 일품인데 2만원이란 착한 가격이 믿기지 않
을 정도 ^^
택배비 5천원을 더한다고 해도 서울에서 먹는 찜닭 값 보다도 저
렴한 것 같아요.
집들이나 상차림에 혹은 손님오셨을 때 주문해서 한번 더 맛봐
야 겠다는 생각이...
식사를 마치면 소화도 시킬겸 구시장 구경도 괜찮아요.
오랜만에 재래시장을 둘러봐서 그런지 정겹더라구요. ㅎㅎ

안동
영광찜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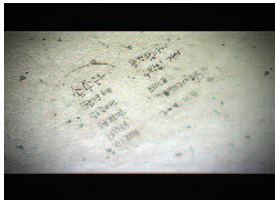
☎문의전화
054) 854-6667

안동하면 찜닭

Dov <http://blog.naver.com/nixjeen/90073473801>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네비에서 안동구시장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친구의 아이나비 G1에서 검색하니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나오던데 서문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시장안으로 들어서니 양쪽 닭그림 간판이 유명세를 치르는 듯 옹기종기 붙어서 2열중대 50미터 정도 늘어져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경에 갔으나 찜닭집마다 빈자리가 없더군요. 평일에 오시면 여유롭게 드실 수 있는 듯 합니다.



안동 유진 찜닭

◎가격정보

찜닭 : 20,000원
후라이드 : 15,000원
양념통닭 : 15,000원
마늘치킨 : 15,000원
공기밥 : 1,000원

기타 : 신용카드 결제가능,
유료주차, 장거리 포장가능.

그중에 저희가 들어간 찜닭집입니다.
다락에 올라가 낙서도 하고 6명(여자4명+남자2명)이서 한마리 반 + 공기밥 6개 시켜서 신발끈 묶다가 올라올 정도로 배터지게 먹었습니다.
점심도 굶고 애매한 오후시간에 가서 그런지 맛도 끝내줍니다.

왜 안동찜닭이 유명한줄 알겠더군요.

(무슨 소리냐 가서 먹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종류의 댓글은.. 상처 받습니다 ㅠ.ㅠ)
다음에 오면 마늘치킨을 먹어볼까 합니다.
안동 가실분 계시면 들리셔서 한번 맛보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b 하루밖에 안지났는데 또 먹고 싶네요.

태그TAG 3

안동식혜 양반
안동찜닭 고택 안동한우 ANDONG
고택체험 하회마을
간고등어 햇제삿밥
하회별신굿탈놀이
선비 도산서원 안동막창골목 건진국수
안동
한국경신문화의 수도



맛집추천 안동 양반밥상

아작아작 <http://blog.naver.com/editor/70073852809>



안동에서 꼭 먹어봐야 할 간고등어...

간고등어는 안동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인 영덕에서 고등어가 오려면 아침일찍부터 출발해도 저녁늦게나 도착하기 때문에 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던 것이 전통이 되어 버렸나보다. 간고디이~ 서울에서야 몇번 먹어봤지만 현지에서 먹어보는 건 나도 처음... 조림과 구이를 다 먹어볼 수 있는 양반밥상으로 3인분 주문...



바람떡, 고등어구이? 안주와 함께 나온 안동소주... 간단히 몇잔 먹으니 참 좋다. 예전 기억에는 안동소주는 분명히 도수가 무지쌔었는데 이제는 종류가 다양한가보다. 이 녀석은 20도 안팎? 드디어 밥상이 나왔다. 찬은 많지는 않지만 나름 괜찮다.

고등어조림... 제주도에서 맛보던 조림과는 차이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녀석이 더 좋다... ^^ **고등어 구이**... 1인분당 반마리다... 세로로 잘라져 있어서 발라먹기 더 좋다... 맛도 좋고.. 윤기 자르르 ~ **간고등어 구이** 마누라도 찬사가 대단하고 첫째녀석도 한공기 다 먹고... 하역간 어설픈 한정식등과 비교할때 더 좋은 것 같다.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안동 양반밥상

문의

주소 : 상아동 513번지
054) 855-9900

맛 ★★★★★☆
서비스 ★★★★★☆
가격 ★★★★★☆

태그TAG 4

안동식혜 양반
안동찜닭 고택체험
안동한우 간고등어 ANDONG
고택 헛제삿밥 하회마을
안동막창골목 하회별신굿탈놀이
건진국수
선비 도산서원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맛집 대구 식육식당

숨사탕 <http://blog.naver.com/danbii1004/50068670475>



안동에 가면 먹을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풍산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대구식육식당은 꼭 들러야 한대서 ㅋ 아침부터 고기 먹으러 간다고 웃었지만 꼭 가보길 잘했어요
소고기만 주문하면 밍송멥송 할 것 같아서 돼지 주물럭도 주문했는데 촌고기라서 그런지 비계 크기가 장난아니더라구요 ㅎㅎ 근데 맛은 정말 예술이에요



600g 가격이니까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
궁물이 끝내주는 소불고기 아침부터 고기 배터지게먹었어요 ㅎㅎ 젊은 3커플이 식당오픈하기 전에 들어와서 아침부터 고기 1.8kg에 밥 8그릇 먹었으니 누가보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ㅋ ㅋ

위치는 안동에서 하회마을 가는 길에
풍산장터가 서는 풍산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하회마을 가실분들은 꼭 들러보시길~~

안동에서
꼭 먹어야 할
그 3번째
안동한우
불고기
사용원

자스민 <http://blog.naver.com/mee0102/60097623263>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는 한우 고장 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그래서 풍산장터 일대에는 현지 한우사육 농가들이 모여 정육점과 식육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안동 한우불고기 타운이다.



이곳의 불고기 타운은 안동한우 불고기축제때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안동한우불고기 타운의 대표적인 음식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간 곳은 '사용원'이다.



우리가 먹은 것은 한우불고기이다.

한우불고기
전문점 사용원

●이용문의/주소

054) 857-5248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안동한우불고기타운내)

단출한 반찬 5가지와 기본세팅이 차려진다.

메뉴로 봐선 한우불고기인 듯 한데 국물의 양으로 봐선 전골 같다. 똑배기 불고기처럼 국물있는 불고기가 안동한우불고기의 특징인듯하다. 보통 불고기라면 간장 소스에 재어 놓는 듯이 보통인데 한우도 생한우 그대로다.

4인이 먹기엔 부족하다 싶은 양이었는데 막상 먹다보니 남기게 되었다. 안동한우가 유명한지 모르고있었던 분들, 안동한우불고기타운에서 그맛의 진가를 확인해 보시라~~~!

경북 안동+풍산 황소곶간

새콤달콤알콩달콩우리 <http://blog.naver.com/asadal55/85787096>

안동에 오면 안동한우를 먹어봐야한다는!!! 안동시내에서 서안동 IC방면으로 쭉~욱 가다보면 하회마을 가는 곳이 나온다.그곳을 따라 또 쭉~욱 따라가다 보면 "안동한우 불고기타운" 거리가 나온다



안동한우불고기타운을 알리는 간판
그 길을 따라 또 쭉~욱 가다보면 황소곶간이 나온다.



우리 한우모듬을 주문(200g1인분에 10,000원)했다. 2인분을 20,000에 먹는건 대구에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갈비살과 등심도 15~16,000원 가격으로 먹을수 있다
노릇하게 구워진 한우!! 입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환상적이다.
저 가격에 저렇게 환상적인 맛을 내기란 하늘에 별따기.



요건 육회비빔밥.내가 사진을 찍을 틈도 없이 밥을 속속삭!! 비벼버리는 JW. 여기 육회비빔밥은 고추장 대신 간장을 준다. 간장에 비벼먹는 육회비빔밥도 별미다.

사진엔 없지만 된장찌개도 맛있었으며, 입가심 냉면도 나름 시원하고 맛있었다. 둘이서 아주 배가 터져라 먹었는데

가격은 36,500원 한우모듬 (2인분 : 400g) : 20,000원
육회비빔밥 : 7,000원 상차림비용 : 1인당 2,500원
공기밥 : 1,000원 냉면 : 3,500원

아주 원츄다!!! 이제 한우는 안동으로!!ㅋㅋㅋ

안동 한우갈비

아작아작 <http://blog.naver.com/editor/70073852003>



네비게이션의 도움으로 전혀 안 헤매고 도착...
주차장도 주차에 전혀 무리 없다.



마늘갈비를 시켰다. 마늘먹인 한우는 함평이 유명할터인데 이곳은 마늘을 먹인 건 아니고 생고기에 마늘을 같이 버무려 나온다. 아이들을 조금 걱정했지만 아이들도 잘 먹는다... 마늘양념때문인지 약간 숙성시킨 느낌..



이번에는 그냥 생고기 주문.. 호호... 마블링이 꽤 좋다...

맛은 마늘생갈비도 좋았지만 눈으로 먹는 점수를 합치면 생고기가 좀더 좋았다고 할까? 된장찌게도 시원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난 찜이 제일 좋았다. 이 찜은 고기가 나왔을때 고기를 잘라내고 남은 뼈를 수거해 가길래 묻가 했더니 이렇게 맛난 찜을 해준다. 약간 매콤하니좋다... (사실 배가 고팠던 관계로 뼈라도 열심히 빨아먹어야 했다.ㅋㅋ)

안동 한우갈비

● 주소, 전화
운흥동 171-10번지
054) 857-6337

씹는질감이
 착착
 안동숯불
 우수
 구이

바람돌이 <http://blog.naver.com/hikhi/30073936763>

안동쪽으로 갈때, 고기가 진짜 땡기면 방문하는 집! 단출한 반찬,
 좋은 숯불
 이쁜놈들..토시살....ㅋㅋㅋ 2인분입니다...
 다른곳보다 그램수가 높아서 2인분도 넉넉한편입니다....



살짝 굵은 고기를 기름장에...
 입에 착착 붙는맛 육즙이 팍 잡혀서...
 씹으면 육즙이 짹짹 나오더군요...
 찰진씹감은..역시 토시살입니다....



우수숯불구이

◎ 위치,전화
 안동경찰서 길건너편
 054) 841-3535

마무리선수는 이집의 된장국수(3000원)입니다....
 시래기를 듬뿍 넣고...
 맑은 된장국에 소면을 넣어 짜지않고
 구수하게 마지막 면발까지 입속으로 씹...
 대구에 이런집 있으면 진짜 자주 가고 싶은 집입니다.

태그TAG 5

안동찜닭 양반 고택체험 ANDONG 하회마을
간고등어 안동식혜 안동한우 핫제삿밥 하회별신굿탈놀이
고택 안동막창골목 건진국수 선비 도산서원 안동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처음만나는 안동, 평민처럼 헛제삿밥

민소연 <http://blog.naver.com/minsoism/150045799171>



여행은 역시 맛있는 음식이다.
노원구 M양 여행기 및 인터넷 검색한 '까치구멍집'

헛제삿밥에는 두가지 설이 있다

하나, 제사가 많은 안동에서 양반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먹었다는 것 둘째는, 가난한 평민들이 양반들 제사를 흉내내 간소한나마 정성을 들여 차린 상이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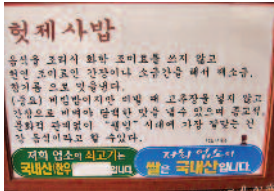
나는 두번째 이유가 마음에 더 들어서 같이 간 친구들에게 (사전 지식 없음;) 그리 말해줬다. ㅋ 빠짐없이 올려진 찬에 나물에 밥 넣어 비벼먹는 방식. 경상도 답지 않게 씹셈하고 무리가 없었는데 외부인과 외국인들도 많이 오기때문일 듯



이것이 안동식혜였다. 맛보면 깜짝 놀램 ㅎ 맵고 시고 단계, 인생사 축약판 같은 맛이 났다.
안동여행. 배부르게 시작..

맛50년
헛제삿밥
안동민속
음식의 집

오돌 <http://odol.kr/93605610>



헛제삿밥은 요래먹는 거란다. ㅋ



개인별로 요게 일인분의 헛제삿밥이다.

곱게 고추물을 잘내 시원하게 맛있었던 나박 김치.

나물종류가 늦그릇에 담어나온다 고사리, 취,콩나물, 배추, 무나물
그리고 도라지. 부침개류는 두부전, 녹두전, 호박전,그리고 간고등
어구이 상어고기 데친오징어 삶은달걀이 올라온다. 상어고기 올
라가는게 특이~



맛50년 헛제삿밥
안동전통음식점

● 위치,전화

상아동 513-2 안동월
영교 바로 길 건너
054) 821-2944

헛제삿밥의 나물밥은 고추장이 아닌 간장으로 비벼먹는 거란다
안동가면 먹어보고 오라고도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배부른데도 결
국 안동식혜 하나 시켜보았다. 무채가 들어있어 개운하다 소화시
키는데 좋을 듯' 고춧가루가 들어가 살짝 매콤~하면서 생강이
들어있어 산뜻하고 약간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맛 인데 이거 먹어
보지않고는 설명불가한맛? ㅋ

굳이 설명하라면 나박김치랑 식혜 섞은 듯한 ~보다는 더 맛있다
ㅋㅋ 다소간이 심심하고 멍멍한 탕국이랑 나물같은 것 먹은 후에
적당한 후식거리 같다.

태그TAG 6

양반

안동식혜

고택체험

안동찜닭

고택

안동한우

ANDONG

하회마을

안동막창골목

헛제삿밥

간고등어

도산서원

선비

하회별신굿탈놀이
견진국수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대구대신
안동에서
막창
고고씩~!

사랑이 <http://blog.naver.com/bo1026/150073834285>



막창의 원조하면 대구라고 하는데.. 안동에 사는 동생이 안동 막창 정말 맛나게 하는 집이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간 집 매일매일 파는 양을 정해 놓고, 그게 다 떨어지면 문을 닫는다고 하니...서둘러간 그곳 안동에있는 서울막창. ^^ 얼렁 안으로 고고씩해보자~



안동에서 만난 반찬들이어서 그릇을까? 야채는 잘 안먹는데 이곳의 야채에서는 신선한 느낌이 확~! 막창을 찍어 먹을 소스..저 소스가 정말로 독특하다 정말 독특하니. 입맛을 돋구더라.. 꼭 소스에 잘게 잘라진 쪽파를 넣고 섞어 먹을 것!! 쫄쫄 씹는 한데 입에서 왜 살살 녹는거지? 정말로 신기했던 막창,, 저 막창의 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맛난 막창을 먹으려면 늘 안동에 와야하나 심었는데 전국택배가 된다더라
완전 신나는 소식~~~!!
정말로 맛있던 서울막창의 막창~잊을 수 없던 그 맛~
아마도 조만간 저거 먹으러 다시 가지 않을까 싶다!!!

안동
서울막창

☎문의전화

054) 854-2881

부산막창 막창 갈매기살

찌니 <http://blog.naver.com/urbania/70017007280>



안동
부산막창

문의전화
054) 852-6804

안동 막창골목에 부산 막창.. 안에는 작은 테이블 6개가 전부였다. 친절한 인상의 아주머니가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셨다. 막창과 함께 먹는 기본찬..양파절이와 특제 소스(청양고추와 쪽파를 배합한다) 이것이 굵 가득한 감칠맛 나는 돼지 막창 결국 4인분이나 먹었다.

이집의 특제 소스로 버무려진 갈매기살. 역시 맛나다^^



맛집찾아 안동으로

김선 <http://blog.naver.com/seseseya/30038522858>



안동터미널,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곳이니 걸어가도 상관없다. 안동초등학교 바로 옆 골목이다.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막창 굽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세명에서 갈빗살 2인분 막창 4인분을 먹었다 ㅎㅎ 그중에 내가 막창 2인분은 먹었을듯..... 서울에서 막창 먹어봐도 정말 이런맛이 안난다. **막창 1인분 6천원**

시골동네 후한 인심으로 아채나 뭐 기타 반찬들 아주 푸짐하게 갖다준다

이맛을 못잇는다 서울쪽 막창집에서는 내어놓지 않는 이 장.. 콩이 들어갔다는것 밖에 알수 없는 이 장은 고소하면서도 짜지 않고 감칠맛이 나는데 노릇노릇 구운 막창에 이거 듬뿍 찍어 먹으면 우아.. 너무 맛있어!!!!!!!!!!!!!!!!!!!!!!!!!!!!!!

태그TAG 7

관광지

간고등어

선비

도산서원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식혜

양반

고택체험

안동한우

고택

안동막창골목

안동

ANDONG

안동찜닭

햇제삿밥

하회별신굿탈놀이

건진국수



- 34 | **안동하회마을** _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 36 | **부용대** _ 가을향기 은은한 황금들녘을 지나 부용대에 오르니
- 37 | **월영교** _ 연인끼리 손을잡고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다리
- 38 | **안동민속촌** _ 월영교다리를 건너 또다른 안동민속을 경험하다
- 39 | **안동장날** _ 안동장날의 풍경
- 40 | **안동봉정사** _ 향기로운 차를 닦은 사찰
- 42 |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_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추억하다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안동
하회마을

빵 <http://blog.naver.com/sports522/100065709105>

동서울터미널에서 약3시간에 걸쳐 안동터미널에 도착했다
어제까지만해도 여름 날씨 같았던 화창함을 어디가고
세찬바람과 가느다란 비까지 내렸다 T_T 그래도 고고씽♪



안동터미널 건너편에서 46번 버스를 탔다. 안동터미널에서 하회마을까지는 약40분 11시 25분 버스를 탔는데

- 좌석버스 요금이 1,650원
- 하회출발은 같은 번호임에도 일반 버스라 요금이 1,100원
- 입장료 2,000원
- 매표소-하회마을 입구까지 순환버스비(왕복) 1,000원
(난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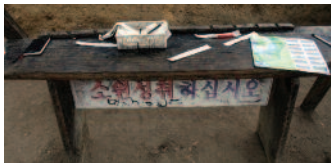
둘러보는 시간 넉넉히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으나 난 아주 넉넉히 3시간을 둘러봤다 거기에는 1시간 정도 더 벤치에 앉아 있어서 4시간 소요

*버스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으니 반드시 시간을 확인해야한다
5분전후의 오차가 있을수 있으니 10분정도 미리 정류장에 도착해야 안심이다





하회마을에서 꼭 했으면 좋을 것
 하나. 만송정 솔숲 벤치에서 조용히 하회마을 여유 즐기기



둘. 소원을 말해봐

삼신당 신목 600년 된 삼신당 느티나무로 하회마을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출산과 성장을 돕는다는 마을의 신목
 나도 하나(?) 적어 매달아 놓았는데 (신목님, 바쁘시더라도 제 소원도 꼭 이루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묶었다



하회마을에서 꼭 하지 말
 았으면 좋았을것

이러지 맙시다 ㅜ_ㅜ

가을향기 은은한 황금들녘을 지나 부용대에 오르니

푸른 안개 <http://blog.naver.com/bluebko/40092115003> 2009.10.10



가을 향기 은은한 황금들녘을 지나 억새꽃 만발한 나룻터

정겨운 나룻배에 올라 유유히 흐르는 맑은 강물 들여다 보며 낙동강을 건넌다.

너무 짧아 아쉬운 강을 뒤로하고 거칠고 가파른 산길을 따라 옥연정사를 지나 힘들게 오르니 드디어 부용대
부용대는 '부용을 내려다보는 언덕' 이라는 뜻이다. . '부용'은 연꽃을 뜻하며, 하회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내려다 보면 하회마을은 물위에 떠 있는 한송이 연꽃처럼 보여, 마을의 모양을 '연화부수형'이라 한다. '하회'라는 이름처럼 낙동강 이 마을을 휘돌아 나가는 모습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와~ 한눈에 보이는 하회마을... 정말 아기자기 이쁘기도 하구나. 나룻터도 보이고 내가 걸어온 독길도 보이고...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하회마을을 한없이 내려다 본다. 올라갈때는 길을 몰라 남들 올라가는 길로 힘들게 올라 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살짝 돌아 가는 길이 있었다. 화천서원 주차장으로 내려 가는 숲길로 내려가니 경덕사당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아 화천서원을 지나면 아까 오를때 보았던 옥연정사가 나온다.^^

아! 나룻배는 휴일에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안동하회마을
관리사무소

☎문의전화

054) 854-3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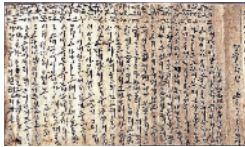
월영교

연인끼리
손을 잡고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다리

키스포토 <http://blog.naver.com/kissphoto/100089944834>



추천데이트장소, 사진찍기 좋은 곳, 달맞이 하기 좋은 곳, 산책하기 좋은곳! 월영교는 2003년에 개통되었으며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입니다. 다리 한가운데 월영정이 있구요. 월영교에서는 이 지역에서 살았던 이용태 부부의 사랑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부부의 사연은 1998년5월 안동시 정상동 택지개발 때 이용태(1556~1586)의 무덤을 이장하다가 발견된 유물들과 함께 공개된 이야기입니다. 450년 만에 유물과 함께 부부의 사랑이야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현재 안동대 박물관에서 보관, 전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무덤에서 발견된 유물 중 하나입니다. 남편의 병환이 심해져 세상을 등지자 이씨

부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삼줄기와 함께 엮어 무덤안에 넣어놓은 미투리입니다. 남편이 어린아들과 유복자를 두고 떠나자 안타까운 마음과 사모하는 정을 편지에 담아 넣어두었다고 하네요.

그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영원히 이어 주자는 의미가 담긴 다리가 바로 월영교입니다. 월영교 중간에 세워진 월영정의 모습이에요. 너무 멋져요~연인과 그 자리에 앉아 낙동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에요.



안동 월영교 가는 길

택시를 타시면 월영교까지 4000원에서 6000원 가량의 택시요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면 안동역→안동댐으로 가는 버스(3번)가 5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막차는 19:30분입니다.

버스노선 : 시외버스터미널-법흥교지차도-안동댐 수질관리사무소-월영교 앞-민속박물관-기념탑-안동댐 선착장

월영교 다리를
건너 또다른
안동민속을
경험하다

Wendy <http://blog.naver.com/ymllove1102/20065207359>



월영교를 건너오면 또다른 구경거리가 많이 있다

우린 왼쪽으로 고고쌩~♪ 일단 입장료 없습니다.

여긴 가마터~ 여럿! 여긴 물레방앗간이 아니던가?! ㅋㅋㅋㅋ



이번엔 KBS드라마 촬영장으로 고고~

태조왕건, 명성황후 제국의 아침을 촬영했다고 한다
해상촬영장의 모습



나이스캐치~청살모가 아주 날렵한 몸놀림으로 점프를~ ㅋ



마냥 모든게 신기하고 즐거웠던 나 ㅋ

안동에 오시면 꼭 둘러 보세요. 강추입니다. ㅋ

안동 장날의 풍경

영통나미 <http://blog.naver.com/snk8513/10029574695>



안동은 2일, 7일이 장날이다. 5일장이 선다
멀리서 벌써 냄새가 풍긴다 멀치젓 향이다. 옛날우리 할머니는 멀
치젓을 너무 좋아하셨다 익숙함이란 이런것인지 멀치젓향이 구
수하다.



“두어마리 더 주소~”

“아 옛날에 누가 책상시계사고, 더 비싼 손목시계 작다고 끼워 달
라 한다더니 아지매가 그쪽이시더~~~~!”

ㅋ 흥정이 무척이나 재미나다.

재래 시장에서는 지난날의 풍경들을 만나는 즐거움과 잊고 지내
던 옛날의 추억과 계절의 감각까지.. 봄빛처럼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 구경에 나는 오늘 지각 했다 ㅠ

향기로운
차를 닮은 사찰
안동
봉정사

네마르 <http://blog.naver.com/gikimi23/30067535106>



얼마전에 다녀온 안동 봉정사. 그곳에서는 감사하게도 주지스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차를 마실수 있었다. 이름도 어렵고, 다양한 차를 마시는데 그 향이 어찌나 좋던지,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 지면서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다. 농담도 하시고, 조용히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실새없이 차를 주시던 자현스님과의 만남. 향기롭게 입안 가득 퍼지는 차 처럼, 봉정사 전체에 그러한 향기가 배어있는 듯 했다. 봉정사는 향기로운 차를 닮은 그런 사찰이 되었다.

나무냄새 가득한 봉정사 오르는 길. 제법잘 닦여 있는 오르막, 단숨에 오르긴 힘들어도 쉬엄쉬엄 즐기며 오르면 좋은 그런 길이다 조금올라가면 멋진곳에 자리 잡은 정자가 있다.명옥대(鳴玉臺)



봉선사 대웅전 [국보 제 311호]
따끈따끈한 국보, 국보로 승격된지 1년도 되지 않은 대웅전이다.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나무의 모습과, 잘 보존된 모양이 국보로도 손색이 전혀없다. 봉정사 극락전 [국보 제15호]

극락전은 현존하는 우리 나라의 목조건축 중 가장 오래된 최고(最古)의 건물이다. 오랜시간을 들이지 않고서 둘러볼수 있는 규모이지만, 대충 둘러볼수 있는 곳은 아니다. 조금 공을 들여서 보고, 세월을 고스란히 느껴보는게 좋을듯..가지런히 땅속에 들어가 있는 장독들. 곱게 말려지고 있는 국화.



영산암가는길.. 오르는 돌계단옆에 곱게 심어지 나리꽃은 그곳을 오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작은 마당을 둘러싸고 배치되어 있는 관심당,송암당,응진전,우화루,삼성각이 너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우리나라 한옥의 아름다움을 새삼느끼게 되었다. 센스있게 문을 고정시켜 놓으신 ^^;

Tip

● 안동역 옆에 위치한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주요 관광지의 버스타는 위치와 버스시간표가 적힌 안내자료를 구할수 있어요. 그거 한장 가지고 여행을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주의 : 봉정사로 가는 버스는 안동초등학교 앞에서 타실 수 있는데 안동초등학교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길건너 신시장방향으로 약 200~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으면 정말 좋겠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도 않고, 기분 마저 가볍게! 시간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 봉정사 영산암이 아닐까 싶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추억하다

홍다니 <http://www.cyworld.com/hongddanblog>



이것저것 체험할꺼리가 많다. 이왕 딸래미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출발한 여행이니 만큼 다 해줄 요량으로 이것도 덜컥했다.



외국할머니도 진지하게 탈을 만드는 중이다. 실제로 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색만 입히는 체험이다.



그래도 정형화된 색상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의 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주가 만든 탈을 쓰고 한껏 찍으려는 중이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www.maskdance.com

☎문의전화

054) 841-6398

돌아가면서 전부 쓰고서 찍자는 의견이 나왔다.
 마누라의 춤사위에 사진이 더 산다 ㅋ현주도 덩달아 웃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다.



낙화야~~~~

선유줄불놀이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부터다. 주위엔 온통 불꽃
 들이고, 강건너 산꼭대기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강에는 배 한척
 이 유유히 떠있고, 촛불들이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간다. 난 .. 그
 기에 넋을 잃고 감탄할 뿐이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낙화야~~~~”소리치면 부용대 꼭대기에서
 불덩이가 떨어진다.
 아직.. 보지못한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ANDONGTREND ANNUAL BOOK

검색어로 여행하는 안동의 문화여행

안동을 블로깅 하다

Bloging ANDONG

블로깅BLOGing

타인의 블로그에 방문하여 글을 읽거나, 스크랩을 하는 행동 등을 가리켜 블로깅BLOGing이라함.